

여성의 숨겨진 아름다움을 표현한 화가 클림트

박재현

문화 에디터

클림트는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화가로 전통적 미술사조에서 벗어나 감각적이고 화려하고 장식적인 예술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는 또한 고전적인 여성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보다는 여성의 숨겨진 관능성에 매료되어 그것을 솔직하게 표현해 비난과 탄을 동시에 받았다.

화려하고 장식적인 클림트를 대변하고 있는 작품이 <키스>다. 키스는 클림트가 즐겨 그렸던 주제 중에 하나이다.

연인들은 절벽 위 꽃밭에서 열정적으로 키스를 하고 있다. 남녀의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는 이 작품에서 금박을 사용함으로써 더욱더 주제를 돋보이게 해주고 있다.

연인들이 입고 있는 옷은 화려해 장식적인 효과를 주기도 하지만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검은 색과 흰색의 직선의 옷은 남성의 힘을, 적색의 타원형 여성의 옷은 여성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대조적인 연인들의 옷의 모티브는 남녀의 이질적인 성격을 표현한다.

남자는 여자의 얼굴에 키스를 하고 여자는 사랑의 감미로움에 빠져 눈을 감고 있

❏ 미술풍경

다. 남자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것은 키스의 주도권은 남성에게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남자의 머리에 쓰고 있는 담쟁이 넝쿨은 사티로스(그리스 신화에서 음탕한 장난을 즐겼던 사티로스는 반은 사람이고 반은 괴물이다.)를 상징하는데 이 작품에서 담쟁이 넝쿨은 이성으로 통제할 수 없는 사랑을 의미한다.

남성 어깨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반짝이는 것은 세속적인 후광을 상징하고 있으며 중간에 끊어진 꽃밭은 사랑의 위태로움을 암시한다.



〈키스〉-1907~1908, 캔버스에 유채, 180*180, 빈 오스트리아 미술관 소장

전통적으로 종교화에서 성스러움을 나타내기 위해 금박을 사용하고 있지만 클림트는 부와 남자의 매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금박은박을 과도하게 사용했다.

연인들이 포옹하고 있는 자세가 사실적으로 보이지만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여자의 키가 지나치게 크게 표현되었다. 클림트는 화면 구성상 인체비례가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유럽, 비잔틴, 일본 미술의 요소를 절충하여 장식을 극대화시키면서 효과와 상징성을 높인 <키스>는 1906년~1909년에 걸쳐 클림트의 황금스타일의 정점을 가리키고 있는 작품으로서 1908년 쿤스트샤우 전시회에서 처음 공개되었다.

클림트 예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초상화다. 초상화가 사라져가는 시기에 클림트는 초상화를 고집하였다. 초상화를 그리는 일은 가장이었던 클림트를 경제적으로 안정 시켜주었다.

클림트의 초상화 대부분은 대학회화 논쟁 이후에 제작되었는데 정부기관 등의 공식적인 의뢰를 중단하면서 부호들이 초상화를 의뢰하는 일이 많아졌다. 그는 초상화를 다른 작업과 동일시하게 중요하게 여겼으며, 의뢰한 고객의 눈에 맞추면서도 자신만의 표현 방식으로 제작하였다.

클림트의 뛰어난 데생 실력은 초상화에서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그의 고객들은 흠족해했고, 클림트에게 초상화를 그려 받는 것은 빈 상류층 여인들의 영광이었다. 화려한 옷차림의 여인들의 초상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만족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클림트는 거의 실제 인물의 크기로 그렸으며 상류층 여성의 우아함을 놓치지 않고 표현했다. 모델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배경을 장식적인 요소로 극대화 시켜 구성했는데 이것은 일반 사람들과 틀린 사교계 여성들의 배타적인 성격을 드러내게 한다.

클림트의 초상화는 상류층 여인과 사교계의 중요한 여인들을 대상으로 한 초상화와 전문 모델을 그린 초상화로 크게 구분되어 진다.

클림트의 초상화는 동시대의 다른 화가들과 다른 요소 두 가지가 있다. 움직임의 결여와 장식성이다. 클림트의 초상화에 여자들은 화려한 옷에 둘러싸여 어떠한 외부 환경에도 상관없이 정지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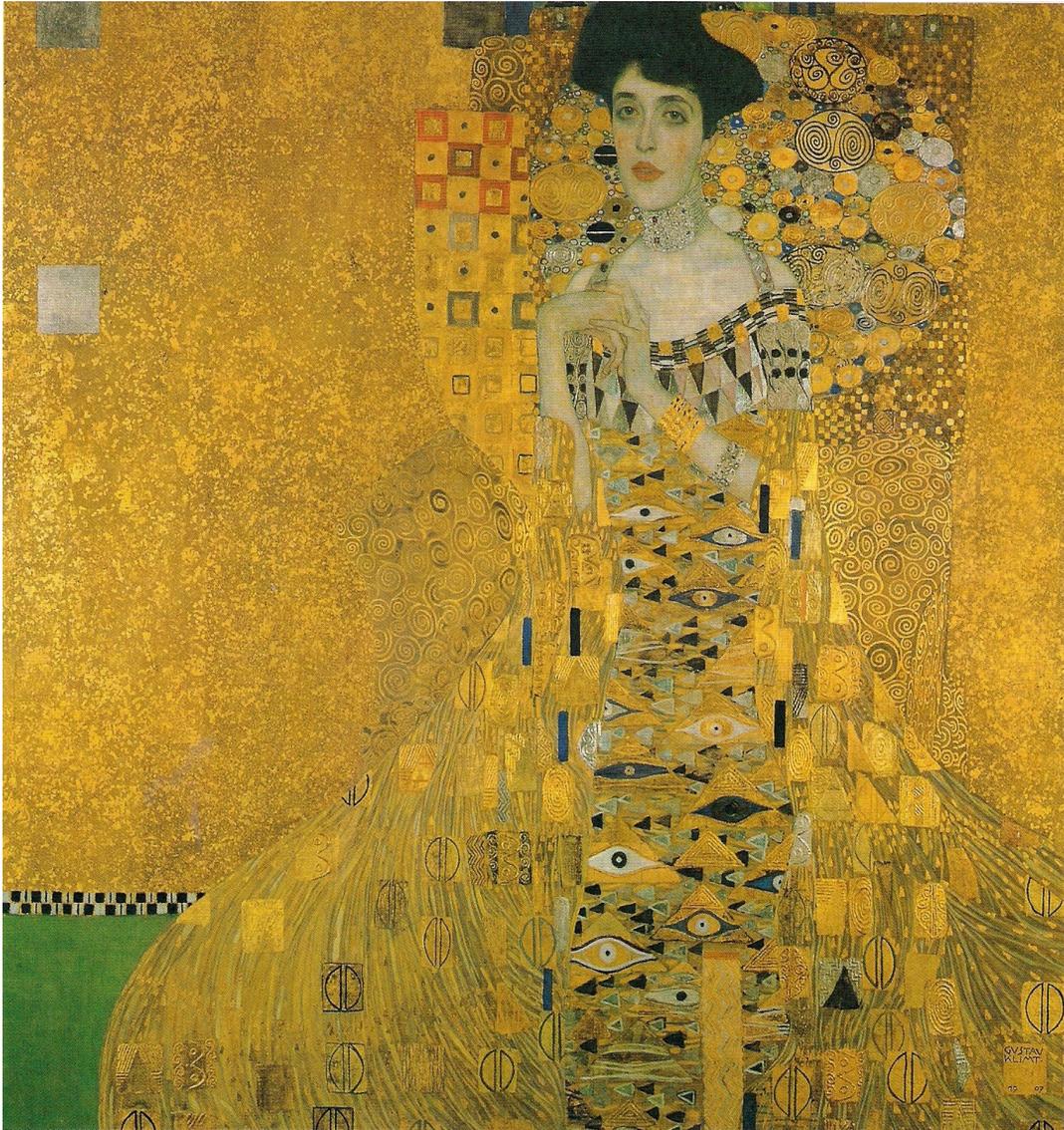
클림트의 초상화 중에서 가장 화려한 작품이 <아델레 블로흐 바우어의 초상1>다. 이 작품은 기업가 페르디난트가 빈 은행가의 실력자의 딸이었던 아내 아델레의 초상화를 클림트에게 의뢰한 작품으로서 남편의 재력을 과시하기 위해 그녀는 화려한 목걸이와 모피를 착용하고 모델로 섰다. 아델레 블로흐 바우어는 클림트의 초상화 모델로 두 번 선 유일한 여인이다.

황금빛 배경 속에 황금빛 의상을 입고 있는 아델레 블로흐 바우어 첫 번째 초상화

❏ 미술풍경

는 클림트의 장식적 양식의 최고의 작품이다.

사회적 지위가 높았던 그녀와 남편을 위해 클림트는 새로운 표현방식을 구상한다. 이제까지 그가 초상화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금, 은박을 화면에 입혀 정교하게 장식한 것이다.



〈아델레 블로흐 바우어의 초상1〉-1907년, 캔버스에
유채와 금, 138*138, 빈 오스트리아 미술관 소장

이 초상화를 완성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는 복잡한 장식을 처리하기 위해 클림트가 정교하고 독특한 기법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복잡한 장식과 호화로운 금은박 사용은 아델레 블로흐 바우어를 신비스럽게 만들었다. 그녀는 비현실적인 세계에서 살고 있는 여신 같은 존재로 보인다.

부와 관능이 묘하게 어울려져 있는 이 초상화는 그녀가 원한 모습이 아니라 의뢰자인 남편이 남들에게 보여주기 원하는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고가의 모피와 보석, 의상을 걸치고 있는 초상화는 아델레 저택에 가질 눈에 뜨는 장소에 걸려 남편의 예술적 안목과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게 만들었다. 남편의 취향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이 초상화는 전통적인 초상화 기법에서 벗어나 있다.

이 작품에서 클림트는 모델의 얼굴과 손 그리고 어깨 부분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화면의 나머지 공간을 무척 장식적인 무늬로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비잔틴 황금 모자이크를 연상시키는 스타일과 장신구는 그녀의 사회적 지위를 알려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상화가 살아 있는 여성이 아니라 여신의 신비스러운 이미지에 가깝게 표현되었다.

구스타프 클림트(1862~1918)는 오스트리아 화단을 대표하는 화가다. 가난한 금은세공사의 아들로써 예정된 미래를 거부한 채 화가의 길을 걷게 된다.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회피할 생각이 없었기에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그의 예술성은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 1876년 빈 응용미술학교에 입학하여 빅토르 올라우스 베르거 교수 밑에서 그림을 배운다. 미술학교의 뛰어난 학생으로 또 촉망받는 젊은 예술가로서 그는 빈 국립극장 천장화 제작에 참여하면서 미술계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한다. 그의 천재성을 알아 본 상류층들이 초상화 제작을 의뢰한다. 초상화 제작으로 가난의 위협에서 벗어난 그에게 이제 미래만이 남아 있었다.

일찍부터 확고한 명성을 얻은 그는 가난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예술세계를 보여주기 위해 전통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장식적인 요소를 가미한 새로운 화풍을 선보이게 된다. 끊임없이 노력하는 클림트에게 명성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시대적 흐름을 무시한 채 고루한 예술가들의 모임인 제도권에 불만을 느낀 클림트는 뜻이 맞는 젊은 화가들과 함께 <빈 분리파>를 결성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새로운 예술을 창조하겠다는 <빈 분리파>의 결성 목적대로 오스트리아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다. 오스트리아는 유럽 미술의 변방이었지만 1900년 형성된 젊은 화가들 중심의 빈 분리파에 의해 독창적으로 꽃피웠다. 후에 빈 분리파는 유럽 미술관 공예운동에 크게 영향을 끼쳤다.

1894년 문교부의 의뢰를 받아 제작한 비엔나 대학 강당의 천장화 <철학>, <의학>

■ 미술풍경

〈법학〉이 발표되자 엄청난 비난이 그에게 쏟아진다. 클림트의 그림은 보수주의자들로부터 비난을 받기 시작한다. 권위의 상징인 학교와 학문에 대한 모독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림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빈 대학 측은 교육부에 클림트에 대한 주문을 철회하라고 하지만 교육부장관 리터 폴 하르텔의 지원 덕분에 작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그림이 춘화라고 비난이 일어나자 클림트는 독지가의 도움을 받아 그 작품들을 회수하기에 이른다.

여론의 비난에 당혹감을 느낀 클림트는 이탈리아 여행을 하면서 자신감을 되찾는다. 여행 중에 접한 비잔틴 예술의 영향으로 자신만의 조형언어인 금박이나 금빛 색채를 쓰기 시작한다. 전통적인 회화의 방식에서 벗어난 클림트의 그림은 이제 자유롭고 파격적인 감각의 에로티즘을 예술 표현하기에 이른다.

1908년에 발표한 그의 대표작 〈키스〉를 기점으로 작품 세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그가 표현한 수많은 여성상들이 에로티즘 하다고 지탄을 받았지만 그것은 클림트가 여성을 보는 남다른 통찰력에서 나온 것이다. 그는 화실에서 모델의 자유분방한 모습에서 남성에게 의해 종속되지 않는 여성의 존재를 예술가의 시선에서 보았다.

만년에 클림트는 주제보다는 양식적인 면에서 변화를 주었다. 말년 작품의 특징은 금은박을 쓰지 않고 미묘하게 혼합된 색을 사용함으로써 그래픽적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